

흑유자와 동아시아 차문화

김영미 | 309호 신안해저문화재실 | 18:00~18:30

한나라 때에 이르러 음다(飲茶)는 이미 상류사회에서 유행한 일종의 애호활동이었으며 차 잎은 일 상음료가 되었을 뿐 아니라 상품으로 이미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위진시대(魏晉時代)부터 차는 술처럼 연회자리의 상에 올리는 중요 기호품 가운데 하나가 되었으며 성당시기에 이르러 차 마시는 풍속이 더욱 넓게 보급되어 집집마다 차를 마셨다고 합니다.

문인 사대부의 생활 테두리 안에서 음다 문화가 전개되고 육우와 문인 사이에 다사(茶事)로 화답하며 넓게 퍼져 나갔습니다. 중당 이후 품다(品茶) 풍이 흥하고 다사(茶事)는 문인, 시인, 선승이 경쟁하듯 읊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시인 목객의 음다는 해갈 뿐 아니라 일종의 심령의 씻음과 정신적 긴장을 풀어주며 일종의 예술적 경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깃다를 정신문화의 영역으로 까지 끌어올리며 당대부터 시작되며, 당대 깃다(喫茶)문화가 중국 다사(茶史)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송나라 사람들이 점다(點茶)와 투다(鬪茶)에 빠져 사대부, 문인 사이에 다양한 다기를 시로 기록한 것이 많아 다기가 음다 문화 가운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송나라는 말차의 황금시기로 그 독특한 점다의 제작방식 및 투다 풍이 유행하여 송나라 깃다 예술은 이전에 없었던 성황을 이룹니다. 송대 사대부 문인은 다사(茶事)에 대하여 당나라 문인보다 더 열중하였는데 이들은 다사 뿐 아니라 각자 시사, 서예, 회화 창작 중에 예술 가작을 남겼습니다. 투다 때에 차의 색을 드러나게 하는 건요(建窯) 토호잔(兔毫盞)과 길주요(吉州窯) 전지첩화치자화문완(黑釉剪紙貼花梔子花文碗) 등은 인기 품목이었습니다.



그림1



그림2

그림1. 치자꽃무늬 완 黑釉剪紙貼花梔子花文碗 신도1544 높이6.4, 입지름12.2cm

그림2. 두 귀 달린 병 黑釉兩耳瓶 신안1021 높이19.4cm

구도자 나한의 자유로운 모습

최선주 | 121호 특별전시실 | 18:00~18:30

오백나한은 부처의 제자이면서 깨달음을 얻어 아라한과阿羅漢果에 이른 이로, 존경과 공양을 받을 만한 500명의 성자聖者를 말합니다.

나한은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불보살에 버금가는 위력을 지닌 존재이지만 대부분이 실제 이 땅에 존재하던 불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나한상에는 위대한 성자의 모습과 함께 다양한 개성을 지닌 인간적인 면모도 표현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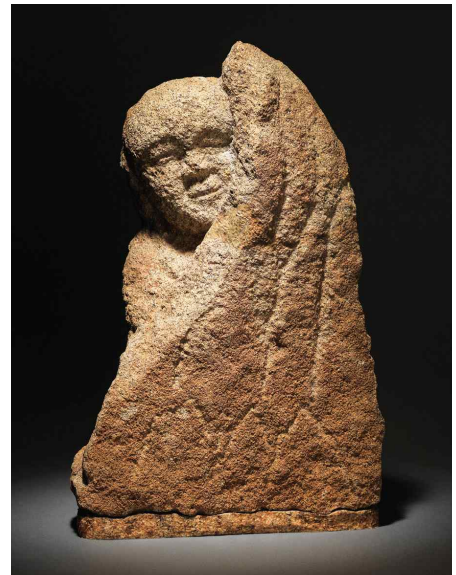
특히 창령사 터 오백나한상에는 성聖과 속俗이 공존하는 나한의 성격 중 ‘세속화’된 친근한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들 나한상은 때로는 희로애락의 감정을 드러내며, 따뜻하면서도 정감이 가는 순박한 표정이 장인의 손길로 투박하게 표현되었습니다.

또한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기쁨에 찬 나한과 내면의 충일감을 일깨우는 명상의 나한, 산과 바위, 동굴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수행하는 나한 등 여러 모습으로 구도자로서의 나한을 구현하였습니다.

나한은 보주寶珠, 염주念珠, 정병淨瓶, 경전經典 등을 지물持物로 들고 있고, 수행하는 나한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대부분 결가부좌의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이러한 나한의 자세는 이목구비가 개성 있게 표현된 얼굴 등 상체를 부각한 조각 기법과 어우러져 과장되지 않고 절제된 모습입니다.

의복은 넓은 포袍인 장삼長衫과 가사袈裟를 입은 옷차림을 하고 있는데 모든 욕심을 버리고 누더기 천을 걸쳐 입은 수행자의 형상을 나타낸 듯합니다.

영월 창령사 터 오백나한상의 가장 큰 특징은 독특한 표정의 얼굴과 함께 머리 위까지 가사를 뒤집어쓰거나 두건을 쓴 나한상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는 고요히 선정禪定에 들어 구도求道の 길을 치열하게 걸었던 나한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창령사 터 오백나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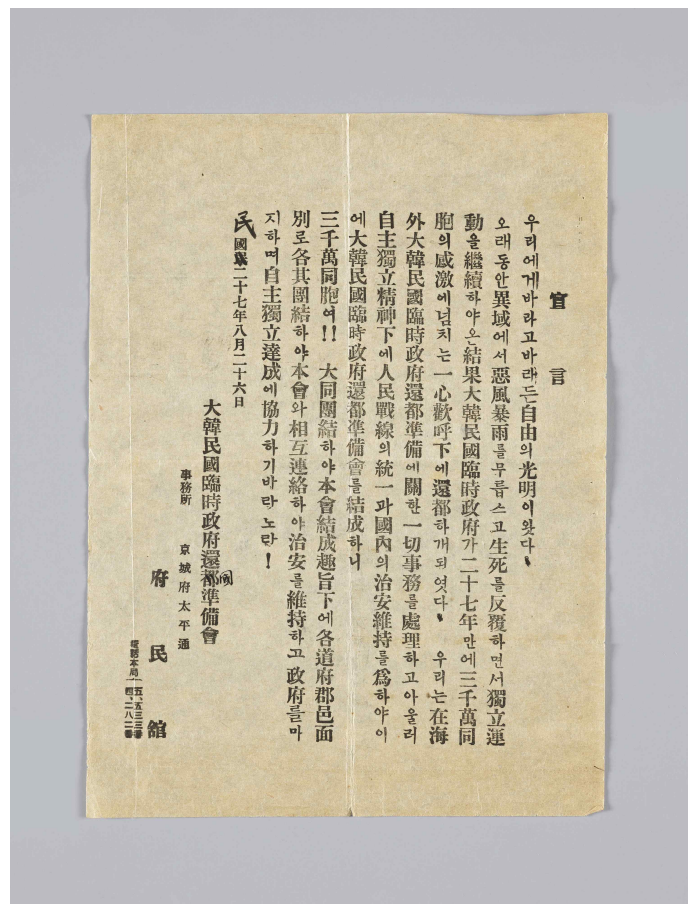
테마전 ‘황제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Ⅲ) -대한민국임시헌장-

김동우 | 115호 테마전시실 | 19:00~19:30

민국國 27년(1945, 1919년 4월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27년 후) 8월 26일에 “대한민국임시정부환국준비회”가 27년만에 환국하는 임시정부를 위해 준비회를 결성하고 각지에 임시정부를 맞이하며 자주독립 달성에 협력하자는 선언서를 발표하였습니다.

1945년 9월 3일자 <<매일신보>>에는 부민관(지금의 서울시 의회 의사당 및 사무처) 3층에 준비회 발족 내용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에는 오랫동안 고국사정에 어두웠던 임시정부 인사들에게 숙소와 청사, 식사 준비는 물론 국내 실정을 각반에 걸쳐 세밀히 조사하여 이를 알리려는 것이 취지였으며, 58명의 지명인사에게 위원이 되어 달라고 초청을 하여 9월 2일 부민관에서 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결의된 사항은 조직과 사무에 관한 것인데 총무부, 환영부, 외교부, 연락부, 선전부, 보안부 등 6부의 부서를 결성하였다 합니다.

김구 주석을 비롯한 1진은 1945년 11월 23일 미군 군용기를 타고 김포비행장으로 국민들의 환영 없이 귀국하였습니다. 그리고 준비회가 정한 경교장(지금의 고려병원)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미 군정은 임시정부 요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도록 하면서 귀국 사실을 알리지 않고, 도착한 이후 오후 6시에 하지 중장의 성명으로 임시정부의 환국을 알렸습니다. “오늘 오후 김구 선생 일행 열다섯 명이 서울에 도착하였습니다. 오랫동안 망명하였던 애국자 김구 선생은 개인의 자격으로 서울에 돌아온 것이다.” 이것이 성명의 전부였습니다.



근대 서화, 봄 새벽을 깨우다(7) 전람회 시대의 서화

김승익 | 기획전시실 | 19:00~19:30

1915년 시정5년기념조선물산공진회始政五年記念朝鮮物産共進會는 일제의 식민통치를 홍보하는 장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 서화가 공적 전람회 시대를 맞이하는 계기였습니다. 안중식이 회장으로 이끌었던 서화협회는 전람회 개최를 구상했으나 1919년 죽음으로 이를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서화가들이 중심이 된 전람회는 1921년 제1회 서화협회전람회書畫協會展覽會가 그 시작입니다. 조선총독부는 이에 대응하여 일본의 제국미술원전람회帝國美術院展覽會를 모델로 한국인과 일본인 화가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관설 미술전람회인 조선미술전람회를 이듬해 출범시켰습니다. 서화협회전람회는 1936년 제15회 전람회까지 개최되었고 조선미술전람회는 1944년까지 모두 23회에 걸쳐 개최되었습니다.

전람회 시대가 시작되면서 서화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습니다.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 신진 세대들은 전람회에서 일본화에 자극 받은 새로운 화풍을 선보였고, 일본화의 유입과 함께 서화는 동양화라는 이름으로 포섭되어 기존의 서화 개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화가들은 새로운 시대에 맞춰 변화를 모색하였습니다. 역사와 민족적 정체성을 찾고자 했던 이도영의 참신한 작품들, 그리고 전통에 기반을 두고 근대적 감각을 결합하고자 했던 신진세대들의 시도는 안중식 사후 새롭게 변모하기 시작한 우리 서화의 모습입니다.



그림 1. 노수현, <신록>, 1920년대, 비단에 채색,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그림 2. 김은호, <부감> 초본, 1927년, 종이에 수묵담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